

청소년수련관 평가활용의 원인조건에 관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한 지 연**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수련관 평가활용의 원인조건을 알아보고, 이들의 조합구조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연구수행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경험이 있는 서울·경기지역의 29개 청소년수련관 실무자들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IBM SPSS ver. 23을 활용하여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fsQCA 3.0 Window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평가활용의 원인조건을 알아본 결과, 평가수용도, 지표의 타당성,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 평가위원회에 대한 인식, 보상수준, 그리고 업무의 자율성이 필요조건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평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의 조합은 세 가지의 조합구조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조합구조는 원인조건들 중 지표의 타당성 변인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이 모두 긍정적인 경우 평가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결과이다. 두 번째는 조직 내의 분위기가 다소 경직되어 있고, 기관을 평가했던 평가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지만 실무자의 평가수용도가 높고 업무의 자율성과 보상이 보장되며, 지표가 타당함과 동시에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 평가활용이 일어난다는 조합구조를 나타냈다. 세 번째 조합은 조직의 보상수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분위기가 다소 경직된 경우라도 실무자의 평가수용도가 높고, 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평가체계(지표의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대한 인식,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면 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경로가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수용도, 평가지표, 평가위원, 평가자료 등의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청소년수련관, 평가활용,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 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 주저자 및 교신저자, hjy0330@hanmail.net

I. 서 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의 질적인 성장과 함께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 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를 근거로 실시되고 있는 종합평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기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기반이 정착되고, 서비스의 질과 청소년지도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2015). 대외적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상을 높이고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평가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평가가 궁극적으로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김인규, 2017; 김형주, 2017; 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2015; 임지연, 송병국, 이교봉, 김영석, 2010).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만 평가결과가 실제적으로 기관이나 실무자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혹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이다(김형주, 2017).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나 하위등급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은(임지연 등, 2010; 김형주 등, 2015) 평가가 아직까지도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단순히 청소년수련시설의 제반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자체가 현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평가가 활용된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책이나 사업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향후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Shadish, Cook &

Leviton, 1991), 평가의 개념에는 본질적으로 의도된 활용이 내포되어 있다(Smith, 1988). 아무리 완벽한 평가 설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관에 적용되거나 반영되지 않으면 평가 본래의 목적과 의미가 반감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평가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평가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평가활용 연구를 시작했던 많은 연구자들도 평가결과가 정책 및 사업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평가의 결과활용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해왔다(Alkin, 1985; Leviton & Hughes, 1981; Patton, 1978) 그러나 평가활용이 단순히 평가결과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개념은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결과활용과는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과정활용이 고려될 수 있는데, 과정활용은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 동안 발생하는 학습의 결과로서 사업적·조직적 변화나 개인의 변화를 의미한다(Patton, 1997). 즉, 과정활용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통해 실무자들이 무엇인가 경험하고 학습하는 긍정적인 효과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활용의 개념을 평가의 전 과정을 수행하면서 청소년정책 방향과 기관 및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평가정보와 평가결과를 통해 수련시설 운영과 사업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활용은 대표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네 가지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등, 2017). 예컨대, 관계기관에 종합평가의 결과가 통보 및 공개되고, 평가 거부시설에 대해 운영을 제한하며, 낮은 등급의 시설에게는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또한 최우수등급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것에 비해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임지연 등, 2010).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는 평가활용의 일부이긴 하지만 앞서 정의했던 평가활용의 개념으로 보면 매우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활용에 대한 연구도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로 평가의 체계, 평가지표의 개선에 초점을 두거나 피평가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을 통해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구세윤, 2009; 구태익, 김호순, 이광호, 전명기, 2005; 김현주, 이혜경, 노자은, 2008; 김형주, 2011a; 김형주, 2011b; 김형주, 황진구, 김정주, 권순달, 2012; 김호순, 김준영, 2014; 이민희, 2007; 임지연, 김영석, 2013 등).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가 시작된 지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평가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평가활용에 대한 현장 및 학계의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평가활용의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 평가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청소년분야에서는 평가활용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학문의 연구를 통해 그 동향과 관련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 내지는 공공기관 및 정책평가의 평가활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평가활용의 개념이 종속변수가 되어 관련변인들을 탐구하거나 검증하는 차원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평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평가활용의 원인조건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평가활용을 일으키는 조건들에 관심을 두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을 도출하거나 평가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인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별화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별, 설치 및 운영형태별 운영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운영성과 및 활성화 수준도 매우 다르다는 점(김형주 등, 2015)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많은 실무자들이 이러한 기관별 차이(지역별, 시설규모별)를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로(김인규, 2017) 기관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즉, 특정한 결과가 결코 단일한 원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원인조건들, 그리고 그들 간의 조합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분석은 특정한 사회현상을 낳는 원인조건들은 두 개 이상의 원인들이 결합되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다중결합적 인과관계를 강조하여(Ragin, 2000), 평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들의 필요조건을 검증하고 조합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함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한 원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보다는 사례 내 각각의 특성 간 상호작용 효과를 완전히 허용하는데 초점이 있다(이승윤, 2018).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동결과성(equifinality)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례지향 연구의 속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사례가 동결하다는 가정을 취하지 않으며 이는 개별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활용과 관련된 원인조건들의 조합구조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청소년수련시

설 종합평가의 평가대상이 되는 시설은 총 6개(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¹⁾ 종류로 모든 시설을 분석대상으로 삼기엔 시설별 특성들이 다양함과 동시에 이질적인 면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활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목적과 취지, 과정활용과 결과활용을 포함한 평가활용의 중요성, 기존문헌에서 제시된 원인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받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평가활용의 원인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원인조건들의 조합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수련관 평가활용의 원인조건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청소년수련관 평가활용의 원인조건 조합구조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청소년수련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개선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등, 2017). 이 평가는 1998년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문화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내부지침이 모체가 되어 2001년도에는 (구)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를 근거로 진행되었다²⁾. 이후 2006년부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2) 우수청소년수련시설 선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는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사업 초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전수를 평가하였다가 2002년 이후부터 시설의 자율 신청방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김형주, 2011).

터 현재까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 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를 근거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라는 명칭으로 평가가 실시되고 있고, 평가대상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으로 총 6개 유형의 시설이다. 평가의 주체는 국가청소년위원회나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의 이동에 따라 변경되어 왔고, 직접 실행하는 주관기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또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였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구체적인 경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진행되고 있고, 평가주체는 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었지만,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실행하였다. 평가의 주기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년을 주기로 실시되어 왔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2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대상 시설을 살펴보면, 평가 초반에는 1년에 한 개의 시설만 평가를 하다가 현재는 한해에 3가지 유형의 시설을 평가하고 있는데, 생활권 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과 자연권 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청소년수련관의 종합평가 경과를 살펴보면, 평가가 시작된 해인 2006년(120개소)부터 2009년(143개소), 2012년(162개소), 2015년(171개소), 그리고 2017년(181개소)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되어 왔으며, 2019년 현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평가의 도구인 평가지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지표는 2006년에 5개 영역의 14개 세부지표를 시작으로 2009년에 지표구성을 대영역·중영역·소영역으로 3단 체계로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모형을 개발하면서 평가지표가 수정·보완되었고 현재까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평가지표 내용은 7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운영 및 관리, 청소년이용 및 참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환경 및 안전, 대외협력 및 홍보, 종합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시설 측면, 사업 및 프로그램 측면, 운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즉, 평가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며,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공개하는 것, 평가거부 시설에 대한 조치, 하위 등

급 시설에 대한 조치, 최우수 등급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구성이 된다. 먼저, 관계 기관에 종합평가 결과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통보하게 된다. 이는 대국민 공개 차원이기도 하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평가를 거부한 시설은 거부시설임을 여성가족부차원에서 공개하고, 교육부에서는 학교대상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평가거부 시설이 있는 지자체의 별도의 지도점검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 평가결과가 미흡 내지는 매우미흡 등급이 나온 시설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조치여부를 확인하며, 지자체는 지적사항 시정을 요구하며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마지막 최우수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내용은 최우수등급 시설 인증 표식을 2년간 게시하고 장관상 시상 및 종사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평가활용

1) 평가활용의 개념

일반적으로 평가활용(evaluation utilization)은 평가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평가활용 연구를 시작했던 많은 연구자들도 평가결과가 정책 및 사업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Alkin, 1985; Leviton & Hughes, 1981; Patton, 1978). 그 중 대표적으로 Patton(1978)은 평가결과 활용을 특정한 결정이나 프로그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며 관찰 가능한 효과로 정의하면서, 시간적으로 '즉각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평가결과를 직접적인 활용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측면이 대두되면서(Weiss, 1981), 간접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차츰 부각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활용유형들이 제시된다(김명수, 2003; Weiss, 1981, 등).

평가활용의 유형은 크게 결과활용과 과정활용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결과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도구적·수단적 활용, 개념적 활용, 상징적 활용 등으로 유형화된다. 반면, 과정활용은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정보를 습득하거나 학습하는 의미에서의 활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먼저, 국외연구에서

사용된 평가활용의 유형들은 2000년대 전까지는 대부분, 도구적 활용, 개념적 활용, 상징적 활용으로 구분하여 결과활용 위주로 평가활용을 정의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평가의 과정에서 학습되는 부분도 평가활용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과정활용까지 포함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국내연구자들도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과정활용까지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평가활용의 개념을 폭넓게 고려한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정활용을 활발하게 활용하였다고 보기에는 과정활용의 척도개발이 미진하고, 현재까지는 결과활용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2) 평가활용의 관련변인

평가활용의 관련변인을 연구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요인들을 찾아 제안하거나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Alkin(1985)은 평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요인을 인간요인(human factor), 상황요인(context factor), 평가요인(evaluation factor)의 3가지 범주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석진(2016)의 연구에서는 활용자 요인, 조직문화 요인, 평가제도 및 평가품질 요인, 상호작용 요인으로 나누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사회복지시설의 평가활용을 연구한 최보미(2008)의 연구에서는 평가과정, 조직풍토, 개인특성과 기관특성을 구분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범주는 크게 평가에 참여하는 개인, 평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그리고 평가활용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평가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된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평가활용 관련변인을 개인특성 영역, 조직특성 영역, 평가체계특성 영역으로 구분하고, 개인특성 영역은 평가수용성을, 조직특성 영역은 업무의 자율성, 보상수준, 지지와 배려로, 평가체계특성 영역은 지표의 타당성,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각 영역에 따른 기존의 연구결과 및 구체적인 설명 등은 아래와 같다.

3) 물론, 모든 평가활용 연구가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김종호(2016)의 경우는 평가의 시기를 기준으로 평가전, 평가과정, 평가후로 나눠 평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정리하였고, 윤재영, 이종환(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인 수요자측면, 평가실행주체인 공급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8개의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바 있다.

(1) 개인특성 영역

개인특성 영역은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피평가기관의 종사자의 개인적 특성을 의미한다. Patton(2008)은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평가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상황적인 접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잠재적 일차 활용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평가활용의 주체가 되는 종사자들의 변수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중, 많은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변수인 평가수용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평가수용도는 평가에 대한 실무자의 우호적인 태도라 볼 수 있다. 이봉락 등(2010)의 연구에서도 평가수용도는 결과활용(수단적 활용, 개념적 활용, 설득적 활용)과 과정활용 모두에게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도 평가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평가수용도가 평가결과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강황선, 권용수, 2004),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평가를 활용하는 잠재적 일차 활용자인 청소년수련관 종사자들의 평가수용도가 평가활용에 원인이 되는 중요한 조건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조직특성 영역

조직의 문화 및 특성에 관련된 변인들이 평가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강영철, 2008; 권종희, 2013; 윤재영, 이종환, 2010; 이봉락, 강근복, 2010; 최보미, 2008 등). 기존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이라고도 하며, 관련변인들은 기관의 문화(합리문화, 위계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 기관장 리더십, 의사소통, 조직구조, 보상수준, 감독자의 배려와 지지, 조직에서의 개인의 자율성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조직의 특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조직풍토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조직이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장신재(2003)의 연구에서는 조직풍토에 대해 '조직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지각되는 조직의 정책, 과정, 환경, 가치관 등과 같은 조직특성의 총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특성을 대표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조직풍토의 하위요인인 업무의 자율성, 보상수준, 지지와 배려에 대한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업무의 자율성은 조직 내에서 조직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유성, 독립성, 재량의 정도를 말하며(Hackman & Oldnam,

1975), 보상수준의 경우는 조직이 업적과 그에 따른 보상을 얼마나 강조하는지와 과업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직무수행에 기초한 승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다(정혜정, 2005). 지지와 배려는 감독자와 고용인 간의 관계에 대한 근함, 지지, 사려, 정신, 동일시, 실수에 대한 배려로 정의된다(정혜정, 2005).

(3) 평가체계 영역

평가활용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요인은 아마도 평가 그 자체일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평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평가체계변인을 꼽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강영철, 2008; 권중희, 2013, 2015; 김중호, 2016; 김형진 등, 2010; 박소영, 2008; 유승현, 2007; 안대영, 2005; 윤재영 등, 2010; 이봉락 등, 2010; 이석진, 2016; 최보미, 2008; 허찬무, 2012 등). 평가체계란 평가제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평가단, 평가지표, 평가시기,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관계, 평가방법, 평가자원, 평가시기 등으로 제시된다. 이 중에서도 평가자, 평가지표,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관계 등이 평가활용에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평가자 요인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평가자의 중립성과 신뢰도(김중호, 2016), 평가자의 질(윤재영 등, 2010), 평가자 신뢰도(김형진 등, 2010)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유진(2004)과 임동진(2009)은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와 전문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한 바 있다. 실증연구로서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자에 대해 검증한 요인은 평가자의 질(윤재영 등, 2010)로서, 평가팀 구성의 적절성, 평가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평가자의 질이 높을수록 평가활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요인이다. 평가활용과 관련된 요인 중 평가지표의 중요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는 평가지표의 객관성, 정확성(김중호, 2016), 평가지표의 타당성(허찬무, 2012), 지표개발과 평가수행 과정(윤재영 등, 2010), 지표의 유용성(강영철, 2008) 등이 있다. 평가지표의 타당성은 사실상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평가의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을 잘 하였는지, 특수성을 잘 반영했는지, 평가기준은 분명하고 명확한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러한 평가지표 타당성은 평가활용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윤재영 등, 2010). 평가지표가 평가의 목적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김중호, 2016).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의사소통 요인이다. 이는 상호작용 요인 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활용이 저해 될 수 있고 평가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중화, 2016).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끊임 없는 대화이고 상호간의 신뢰라 볼 수 있다. 김중호(2016), 이석진(2016), 이봉락 등(2010), 김형진 등(2010), 유승현(2007)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은 평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언급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대상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경기지역 청소년수련관의 종사자이다. 조사대상의 기준은 서울·경기지역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 중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1회 이상 경험했던 자이다. 또한 기관별 분석을 위해 각 기관별로 대부분의 직급을 포함시켜 조사하도록 하였다. 종합평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장급 이상과 팀장급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평가를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담당자들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조사시기와 방법 등 전반적인 조사의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설문지는 서울지역 15개 기관, 경기지역 14개 기관으로 총 29개 기관에 270부를 배포하여 247부의 설문지를 회수 받았다(회수율 91.48%).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설립 재단법인이 13개(44.8%)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단체 및 법인이 12개(41.4%), 학교법인 2개(6.9%), 종교

법인, 시설관리공단이 각 1개(3.4%)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는 시립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는데 시립이 20개(69.0%), 구립이 9개(31.0%)이다. 마지막으로 기관들의 2017년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등급 기관이 18개(62.1%), 우수등급 기관이 8개(27.6%), 적정등급 기관이 3개(10.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시기	• 2018년 8월 20일 - 9월 14일	
조사대상	• 청소년수련관 종사자들 중 종합평가를 1회 이상 참여한 청소년지도사 • 한 기관에 부장급, 팀장급, 사업담당자급 모두 포함	
조사기관	• 서울지역(15개소), 경기지역(14개소)	
회수 및 분석대상 설문지	배포설문지	270부
	회수설문지(회수율)	247부(91.48%)
	분석제외 설문지	20부
	최종분석 설문지	227부(84.07%)

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9개의 기관이다. 29개의 기관별 분석은 청소년수련관의 실무자 227명의 응답을 활용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관별 점수는 227명의 종사자들의 응답을 기관별로 묶어 각 변수의 평균을 낸 값이다. 기관분석을 위해 종사자들의 응답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특징이 개인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고, 기관을 분석하기 위한 퍼지셋 분석 연구의 여러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⁴⁾

4) 한승현(2018): 국제개발사업 담당 관리자의 응답을 통해 한국 NGO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김예림(2017): Wee센터의 종사자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휴먼서비스 조직간 통합과 네트워크 효과성 분석을 실시함
 유승은(2017): 각 기관의 사업 담당자의 응답을 통해 건설사업의 성공조건을 연구함
 남승현(20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중심으로 센터의 조직역량과 자활사업 성과를 분석함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 중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평가체계와 평가활용의 척도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에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의 척도를 청소년수련시설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들에게 서면 및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보다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하였고, 설문지의 가독성을 높이고 적절한 문맥으로 수정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석·박사 전공생들을 중심으로 윤문작업을 실시하였다.

1) 결과조건: 평가활용

(1) 과정활용

과정활용은 앞서 정의한대로 기관의 실무자가 평가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면서 습득 및 학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정활용 문항은 유승현(2007)의 공공기관(책임운영기관) 평가를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총 5개로 '다른 업무의 이해, 조직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업운영을 위한 아이디어 획득, 사업의 체계적 정리, 청소년정책의 방향성 이해'로 구성된다. 과정활용의 Cronbach's α 는 .881로 적절한 수준이다.

(2) 결과활용

결과활용 변수는 평가정보 및 평가결과를 통해 기관 운영과 사업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활용은 공기업 사업평가의 결과활용 척도로 개발된 이석진(2016)의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결과활용은 총 5개의 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851이며 적절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2) 원인조건: 개인특성 영역, 조직특성 영역, 평가체계특성 영역

(1) 개인특성 영역: 평가수용도

평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영역인 평가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영철(2008)이 개발한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평가수용도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들이 갖는 평가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으로서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5이다.

(2) 조직특성 영역

① 업무의 자율성

조직의 특성 중 업무의 자율성은 장신재(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율성은 업무수행에 대한 자율권 및 책임성에 대한 보장, 불필요한 간섭의 배제 등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680으로 다른 척도에 비해 다소 낮게 측정되었지만 제외할 정도는 아니므로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② 보상수준

보상수준은 과업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지, 직무수행에 기초한 승진이 이루어지는지의 지각정도를 의미한다. 조직의 특성 중 보상수준도 장신재(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는 .859로 적절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③ 지지와 배려

지지와 배려 변수는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관계,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한 지각으로서 상사, 동료, 부하직원 모두를 포함하는 관계와 분위기를 의미한다. 지지와 배려의 문항도 장신재(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조직풍토 척도내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7개의 문항이며, Cronbach's α 는 .844이다.

(3) 평가체계특성 영역

① 지표의 타당성

평가지표의 타당성은 윤재영 등(2010)이 직접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기존의 변수명은 ‘지표개발과 평가수행과정’으로 되어 있지만, 척도의 타당화 과정을 거쳐 ‘지표의 타당성’으로 변수명을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이며, Cronbach's α 는 .904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②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문항도 윤재영 등(2010)이 직접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구성 등에 대한 인식 포함하여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Cronbach's α 는 .902로 높게 나타났다.

③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에 대한 척도는 유승현(2007)이 개발한 ‘상호작용’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변수명이 ‘상호작용’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므로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으로 변수명을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문항은 총 4개의 문항이며 Cronbach's α 는 .893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과 각 문항의 기초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ver. 23을 활용하였고, 평가활용의 원인조건 조합구조를 밝히기 위해 fsQCA 3.0 Window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각 사례들의 변수를 0과 1사이의 퍼지셋 점수로 변환하는 눈금매기기, 필요조건 검증, 진실표 분석, 충분조건 검증(원인조건 조합)을 통한 충분조건 검증으로 진행하였다. 퍼지점수 변환값은 아래 내용과 같다.

퍼지셋 점수 변환은 연구자가 조건의 속성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변수들을 세밀하게 쪼개진 연속적 척도로 눈금을 매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Ragin,

2000; 이승윤, 2014). 눈금을 매기기 위한 방법은 중위값, 원점수의 최소값과 최대값, 표준정규분포 값, Z값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Ragin(2000)은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기준과 경험에 기초하여 퍼지셋 점수를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논의되는 개념들은 상대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김민섭, 2007; 이수정,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아랑, 김예린, 김근세(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퍼지셋 점수 계산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표준정규분포의 경우 대부분의 값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3표준편차 단위 내에서 위치한다는 전제로 퍼지셋 점수를 변환한 것이다. 수식에 의해 계산된 기관별 원점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제시되며 본 연구의 퍼지셋 점수는 최소 0.01점부터 최대 0.95점으로 분포되었다.

IV. 연구결과

1. 평가활용의 원인조건에 대한 필요조건 검증

결과조건을 일으키는 원인조건의 조합모형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원인조건들의 필요조건 분석을 실시한다. 필요조건은 결과조건 Y가 원인조건 X의 하위집합(subset)이 되는 경우이며 ‘특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모든 사례가 공유하는 원인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요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과조건의 소속점수가 원인조건의 소속점수보다 낮아야 하는 것이다(원인<결과). 반면, 원인조건 X가 결과조건 Y의 하위집합이 되는 경우를 충분조건이라고 부른다. 즉, 충분조건 검증 과정은 원인이 결과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며, 충분조건은 결과조건의 소속점수가 원인집합의 소속점수보다 높게 된다(원인>결과). 충분조건 검증에서는 각 사례에서 원인조건들의 조합이 제시된다. 아래 표 2는 평가활용을 일으키는 필요조건 검증결과이다.

표 2

평가활용의 원인조건에 대한 필요조건 검증

영역	원인조건	일치도(consistency)		필요조건 검증
		과정활용	결과활용	
개인 특성	평가수용도	0.91	0.90	필요조건
	~평가수용도	0.61	0.64	-
조직 특성	업무의 자율성	0.80	0.80	필요조건
	~업무의 자율성	0.76	0.75	-
	보상수준	0.82	0.82	필요조건
	~보상수준	0.74	0.75	-
	지지와 배려	0.74	0.75	-
	~지지와 배려	0.76	0.76	-
평가 체계 특성	지표의 타당성	0.87	0.84	필요조건
	~지표의 타당성	0.71	0.74	-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0.84	0.83	필요조건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0.75	0.76	-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	0.87	0.84	필요조건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	0.72	0.75	-

먼저, 원인조건의 존재와 부재(여집합, ~로 표시된 변인)상태 모두를 투입하고 일치도(consistency)가 .80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ange, 2006). 먼저, 개인 특성 영역에서 평가수용도는 기타 다른 변수들 중 가장 높은 일치도(consistency)를 나타냈다. 이러한 점은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평가를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조직의 특성에 대한 변인으로 업무의 자율성과 보상수준이 평가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임이 검증되었다. 기관의 실무자가 자신의 업무를 보다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거나 개인의 업적을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분위기인 경우에 평가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조직특성 중에 지지와 배려 변인은 평가활용에 필요조건으로 인과관계가 검증되지는 않았다. 비록 이 변인은 필요조건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에서는 INUS⁵⁾ 조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NUS조건은 어떤 결과의 필요

5) INUS는 “insufficient but non-redundant part of an unnecessary but sufficient condition”의 약자

조건이라기 보다는 충분한 조건들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인을 일컫는데(안건훈, 2007), 비록 조직의 지지와 배려가 평가활용에 단독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지라도 조건들의 결합들 속에서는 특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후 제시되는 조합구조 모델 3가지 모두 지지와 배려 변인이 다른 변인들과 조합되는 경로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체계특성 영역의 경우는 지표의 타당성,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 모두가 평가활용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평가활용을 높이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는 평가 그 자체에 대한 조건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2. 평가활용의 원인조건 조합구조

퍼지셋 분석에서 독립변수라는 표현 대신 원인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각각의 조건이 독립적으로 결과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원인조건의 조합을 통해 결과조건과 의미있는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 진실표 알고리즘(Truth Tables Algorithm)을 활용한 조합분석(Configurational Analysis)을 실시해야 한다. 진실표 알고리즘 방법을 시행할 때는 원인조건의 수(N)에 따라 2^n 만큼의 조건 조합이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원인조건에 대한 128개의 조건 조합이 나타난다. 이 중 사례수(number)가 0인 조합을 제거하고, 일치도(consistency)가 0.80이상인 조합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제시하였다(허아랑 등, 2015).⁶⁾ 그리고 포괄성(coverage)이 0.30이상인 경우 해당 조합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 원인조건 조합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전체 사례의 3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회귀분석에서 상관계수 강도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승윤, 2014). 아래 제시된 표 3과 표 4는 과정활용과 결과활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조건의 진실표이다. 이후 진실표 분석을

이다. 매키(Mackie, 1965)의 견해에 따르면, INUS 조건이란 “어떤 결과의 발생에 대해 필요하다기 보다는 충분한 조건들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인”을 가리킨다. 이러한 INUS 조건은 회귀분석의 변수로 설명했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fsQCA에서는 다른 조건들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병훈, 2015).

6) 일관성(consistency)은 조건 조합을 공유하는 사례들의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점수가 1.0에 가까우면 일관성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Ragin, 2006).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조건의 조합과 결과조건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표준 분석(standard analysis)을 시행하였다.⁷⁾

표 3

과정활용 원인조건의 진실표

개인 평가 수용도	조직 특성			평가체계 특성			number	raw consist.
	자율성	보상 수준	지지와 배려	지표의 타당성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		
1	1	0	0	1	1	1	2	0.952
1	1	1	1	1	1	1	1	0.790
1	0	1	0	1	1	1	1	0.614
1	1	1	0	1	0	1	2	0.954
1	0	0	1	1	1	1	1	0.443
1	1	1	1	0	0	0	1	0.344
1	1	1	1	0	1	1	3	0.946

표 4

결과활용 원인조건의 진실표

개인 평가 수용도	조직 특성			평가체계 특성			number	raw consist.
	자율성	보상 수준	지지와 배려	지표의 타당성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		
1	1	0	0	1	1	1	2	0.993
1	1	1	0	1	0	1	2	0.993
1	0	1	0	1	1	1	1	0.755
1	0	0	1	1	1	1	1	0.784
1	1	1	1	1	1	1	1	0.779
1	1	1	1	0	1	1	3	0.988
1	1	1	1	0	0	0	1	0.428

7) 표준분석에는 중간해법(intermediate solution)을 비롯하여 복잡한 해법(complex solution), 간명 한해법(parsimony solution)의 세 가지 해법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중 중간해법(intermediate solution)이 가장 최적화된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Ragin, 2008) 퍼지셋 분석의 많은 연구들에서 중간해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도 중간해법을 분석결과에 사용하였다.

평가활용의 하위요인인 과정활용과 결과활용을 구분하여 각각 진실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과정활용과 결과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 조합이 총 3개로 동일하게 도출되었고 조합모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과정활용은 전체 조합들의 설명력으로 볼 수 있는 포괄성(coverage)이 0.876, 일치도(consistency)는 0.913이며, 결과활용은 포괄성(coverage)이 0.861, 일치도(consistency)는 0.925로 매우 적합한 조합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표 5

평가활용의 원인조건 조합구조

모델	원인조건의 조합	과정활용		결과활용	
		포괄성/ 일관성	사례	포괄성/ 일관성	사례
①	평가수용도 * 업무의 자율성 * 보상수준 * 지지와 배려 *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	0.797 / 0.946	기관13 기관15 기관29	0.750 / 0.988	기관13 기관15 기관29
②	평가수용도 * 업무의 자율성 * 보상수준 * ~지지와 배려 * 지표의 타당성 *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	0.702 / 0.954	기관11 기관19	0.659 / 0.993	기관11 기관19
③	평가수용도 * 업무의 자율성 * ~보상수준 * ~지지와 배려 * 지표의 타당성 *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	0.727 / 0.952	기관4 기관25	0.682 / 0.993	기관4 기관25
solution coverage		0.876		0.861	
solution consistency		0.913		0.925	

앞서 제시한 평가활용 원인조건 조합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합은 [평가수용도 * 업무의 자율성 * 보상수준 * 지지와 배려 *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의 경로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는 모든 원인조건들 중 지표의 타당성 변인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이 모두 높을 때 평가활용의 점수도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무자의 평가수용도가 높고 업무의 자율성,

보상수준, 지지와 배려가 잘 이루어지고 이와 동시에 평가위원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과정활용과 결과활용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이 첫 번째 모델에서 지표의 타당성이 제외된 이유는 지표의 타당성이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 모두 원인조건의 조합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Fs/QCA 분석의 최소화 과정(minimization)을 거쳐 삭제가 된 것이다. 이 조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과 조직, 평가체계 조건 대부분이 긍정적이라는 점은 매우 이상적인 조합일 수 있고 이러한 조합모델이 평가활용을 일으킨다는 부분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첫번째 조합에 속하는 청소년수련관은 총 3곳으로 제시되었다. 분석된 29개의 수련관 중에 이러한 이상적인 조합을 나타내는 기관이 소수라는 점은 기관차원에서도, 평가차원에서도 아쉬운 면이 있다. Model①에 속한 기관 세 곳 모두 과정활용과 결과활용 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을 보였다. 그리고 두 곳은 최우수등급의 평가를 받았던 기관이었다. 이러한 점은 평가활용의 모든 조건이 긍정적인 기관들은 평가등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평가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함께, 실무자들이 속한 조직이 업무의 자율성이 높고, 지지와 배려가 많은 분위기,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기관일 경우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였을 것이며 평가를 통해 사업의 아이디어나 방향성 등을 배우기에 적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활용 원인조건의 두 번째 조합구조는 [평가수용도 * 업무의 자율성 * 보상수준 * ~지지와 배려 * 지표의 타당성 * ~평가위원회에 대한 인식 *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으로 7가지의 원인조건 중에 기관의 지지와 배려와 평가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조직 내의 분위기가 다소 경직되어 있으며, 기관을 평가했던 평가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지만, 실무자의 평가수용도가 높고 업무의 자율성과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며, 지표가 타당함과 동시에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 평가활용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Model②의 경로에 제시된 기관은 기관11과 기관19이다. 기관1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설립 재단법인으로 전년도 평가에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 기관은 전체 21개 기관을 통틀어 평가활용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이다(과정활용 3.82점; 결과활용 3.94점). 기관19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평가활용 수준을 보였고(과정활용 3.51점; 결과활용 3.91점), 운영주체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이다. 두 기관은 공통적으로 과정활용보다 결과활용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가등급이 최우수(기관11)와 우수등급(기관19)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Model②에서는 평가위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더라도 과정과 결과활용 모두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경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평가위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평가활용을 예측하는데 물론 중요한 요인이지만, 현재로서는 평가위원의 역할이 평가활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이 단순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과정 중에 기관의 발전과 질적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모델에서 제시한 경로만을 보고 기관의 분위기가 다소 경직되고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해도 평가활용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 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평가활용을 일으키는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긍정적인 경우가 사실상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긍정적인 조건들과 조합되어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조직의 낮은 지지와 배려, 그리고 평가위원의 불만족이 다른 조건들과 상호작용 되어 평가활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 모델이다.

평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의 세 번째 조합모델은 [평가수용도 * 업무의 자율성 * ~보상수준 * ~지지와 배려 * 지표의 타당성 *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으로 보상수준과 지지와 배려가 낮고, 이외의 조건들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즉, 기관의 보상수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분위기가 다소 경직된 경우라도 실무자의 평가수용도가 높고, 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평가체계(지표의 타당성,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 평가주체와의 의사소통)가 긍정적으로 작동 된다면 평가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경로를 보여준다. 즉, 평가를 활용함에 있어 조직의 특성보다 실무자의 평가수용도와 평가체계의 특성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Model③에 부합되는 기관은 기관4와 기관25이다. 지방자치단체 설립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4는 과정활용(3.48점)이 결과활용 점수(3.34점) 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년도 평가등급이 우수등급이다. 기관25의 경우는 과정활용(3.28점) 보다 결과활용(3.42점)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운영주체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으로 전년도 최우수 등급 시설이다. 이렇듯 최우수나 우수등급의 기관일

경우 평가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평가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수용도와 평가체계에 대한 인식이 마지막 Model③의 조합에 제시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평가가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수련관 평가활용의 원인조건을 탐색해보고, 조건들의 조합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실시되었다. 평가활용을 높일 수 있는 원인조건과 그 조합에 대한 결과는 향후 평가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평가활용의 원인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29개 청소년수련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대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1회 이상 경험했던 실무자이고, 기관별 분석을 실시해야 하므로 각 기관별로 대부분의 직급의 종사자들을 포함시켜 조사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으로 눈금매기기, 필요조건 검증, 충분조건 검증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활용에 관한 증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관의 실무자들이 평가활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평가수용도가 강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조건 검증에서의 일치도 수치(과정활용 0.91점, 결과활용 0.90점)는 다른 조건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원인조건 조합구조의 3가지 모델에서도 공통적으로 평가수용도가 높은 경우에 평가활용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수용도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들이 갖는 평가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으로 현행 평가체계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구별되는 개념이다. 가령, 기본적으로 평가제도에 대한 효과나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하지만(평가수용도) 그와 별개로 현행 평가체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평가활용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학자들 중 Alkin과 Coyle(1988)는 평가체계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수행되어 ‘오평(misevaluation)’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평가활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적절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실무자의 평가수용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평가활용을 촉진한다는 매커니즘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실무자들의 평가수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오평’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평가체계가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평가활용이 가능한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기관 및 실무자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관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기능으로서의 평가지표가 아닌 기관과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가능한 평가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표의 타당성은 과정활용(일치도: 0.87점)과 결과활용(일치도: 0.84점) 모두 필요조건으로 검증이 되었고, 원인조건 조합모델②에서도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더라도 평가활용을 높이는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건 중 하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지표가 평가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현행 평가지표에는 각 지표별로 지표의 평가방향과 평가기간, 평가기준, 평가요소⁸⁾, 구체적인 평가내용, 평가자료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각 지표별 추구할 방향성과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제공되어 있어 평가지표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평가지표 내에 각 지표별 활용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가활용의 대표적인 학자인 Patton(2008)은 평가지표 내에 해당 지표를 통해 얻게 될 정보에 대한 활용방향 및 활용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활용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법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평가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평가활용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어떤 지표는 기관의 운영과 활동 및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지표가 있는 반면, 간접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충분한 평가활용을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초기개발과 발표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요구는 매해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 중 하나일 것이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과거 2년간의 업무를 확인하고 지표에 부합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과거지향적인 평가방법으로 기관의 운영과 활동

8) 보통 각 평가요소 항목에 5점 만점으로 평정기준을 제시함

및 프로그램에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 가장 바쁜 시기인 여름철에 평가지표를 발표하고 실시한다는 것은 평가지표를 충분히 숙지할 시간과 여유가 없이 평가서류를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는 평가 2년 전에 지표개발과정을 거치고 최소 1년 전에 평가지표를 발표하여 기관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지표 조기발표가 현실화 된다면 평가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욱 부합될 것이며, 여름철에 평가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실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현장평가위원이 평가활용에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평가활용의 원인조건 조합의 두 번째 모델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인식이 낮더라도 평가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현재로서는 평가위원의 영향력이 평가활용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 결과일 수 있다. 현재 종합평가는 기관 자체적으로 서면평가가 실시된 직후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가 진행된다. 현장평가 위원은 주로 관련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2인 1조로 구성되어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부 평가위원은 평가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기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운영의 팁을 전달해주는 등 긍정적인 조언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각 평가위원의 역량과 개인적 전공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일부 위원의 경우 개인적 전공에 관련된 사업을 핵심적으로 체크하는 등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한계를 보이면서 현장과의 갈등을 보이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김형주 등, 2017).

따라서 평가위원의 역할을 개인의 역량에만 맡기기 보다는 기관의 질적 성장과 평가자간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평가위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가 기관을 최소 2회 이상은 평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제공되는 조언과 정보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의 역할에 대한 공유와 평가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가 평가시행 전 단발성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교육 내지는 서면교육 등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위원의 역할은 우수기관에 대한 소개 및 공유, 청소년전반에 걸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향후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조언 제공 등이 있을 수 있다.

넷째, 평가를 받기위해 작성된 평가서류와 정보들은 평가등급을 매기는데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현장과 관련한 증거기반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오철호, 2016). 기관에서 작성하는 평가관련 서류들은 과거 2년간의 기관 행정, 프로그램, 사업 등의 내용을 총 망라한 자료로서 단지 평가등급을 매기는 수단만으로 활용되기에는 실무자의 노력과 자료의 가치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1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전국의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현황들을 빅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평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 및 조합구조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가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한 점, 평가와 관련된 여러 집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 그리고 질적비교분석에서 도출된 사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미진한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활용에 대한 척도개발과 함께 평가주체, 평가위원, 그리고 피평가자 집단을 고려할 수 있는 연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실무자의 인터뷰, 혹은 기관의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관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강영철 (2008a). 공공조직 구성원의 성과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조직특성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3), 245-273.
- 강영철 (2008b).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조직구조, 조직문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3), 123-152.
- 강황선, 권용수 (2004). 조직성과평가결과에 관한 공무원의 수용성 제고방안: 성과평가 체제의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6(4), 789-811.
- 관계부처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 구세윤 (2009). **청소년시설 종합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구태익, 김호순, 이광호, 전명기 (2005). 시범청소년수련시설 평가지표체계 연구. **청소년 시설환경**, 3(3), 13-22.
- 권종희 (2013).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 결과 활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 복지행정학**, 15(2), 217-252.
- 김명수 (2003). **공공정책평가론(개정증보판)**. 서울: 박영사.
- 김인규 (2017).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 연구: 청소년 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호 (2016). 정책평가 결과활용의 제고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3), 205-222.
- 김혁진, 김정주, 김인규, 김문주 (2012). **2012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김현주, 이해경, 노자은 (2008).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 중심 평가항목의 분석 방법 개발. **미래청소년학회**, 5(1), 183-200.
- 김형주 (2011). 청소년수련관 평가지표 가중치 분석 방법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18(12), 181-202.
- _____ (2011).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지표 중요도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9(4), 9-55.
- 김형주, 김정주, 김혁진 (201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임지연, 한도희, 김영애, 김혁진, 김인규 (2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 연구Ⅱ: 청소년수련관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황진구, 김정주, 권순달 (2012).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Ⅲ: **청소년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201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호순 (2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에 대한 고찰. **청소년학연구**, 18(8), 187-215.
- 김호순, 한도희, 황진구 (2011). 2010년 청소년문화의집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309-332.
- 노유진 (2004).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향요인과 활용유형의 특성에 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맹영임, 조혜영, 김민, 김영호 (2011).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소연 (2005). 기업의 조직풍토가프로그램 평가 결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 **The Korean Journal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7(2), 27-46.
- 박영균, 김호순 (201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09). **2009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안대영 (2005). **사회복지관 평가에 대한 인식과 평가결과의 활용정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평가편람**.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7).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평가편람**.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운영현황 통계편람**.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8).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오철호 (2010). 평가활용, 평가역량 그리고 정책학습.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 1-12.
- _____ (2016). 문제제기: 좋은 평가와 평가결과의 활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3), 193-204.

- 유승현 (2007). **평가활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책임기관 사례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재영, 이종환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에 한 피평가시설의 도구 활용. **한국사회 복지행정학**, 12(1), 89-115.
- 이각범 (20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보고서**.
- 이민희, 김경준, 황진구, 최창욱, 성윤숙 (2007). **2006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민희 (2007). 청소년수련관의 평가지표 표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5(3), 75-87.
- 이봉락, 강근복 (2010).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활용의 영향요인 분석: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지방행정연구**, 23(3), 45-79.
- _____ (2010). 활용자 소속에 따른 평가활용의 영향요인 차이 분석: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2), 65-101.
- 이석진 (2016). **평가 활용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윤 (2018).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임지연, 송병국, 이교봉, 김영석 (2010).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청소년 수련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신재 (200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정 (2005).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조직풍도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보미 (2008). **평가결과 활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아랑, 김예린, 김근세 (2015).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OECD 국가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309-344.
- 허찬무 (2012). **성과측정지표의 특성이 성과평가결과의 수용성 및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lkin, M. C. (1985). *A Guide for Evaluation Decision Maker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Alkin, M. C., & Coyle, K. (1988). Thoughts on evaluation utilization: Misutilization and non-utilization.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14, 331-340.
- Alkin, M. C., & Taut, S. M. (2003). Unbunding evaluation use.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29(1), 1-12.
- Hackman, J. R., & Oldham, G. R. (1975). Development of the job diagnostic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2), 159-170.
- Leviton, L. C., & Hughes, Edward F. X. (1981).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Evaluation Review*, 5(4), 525-548.
- Patton, M. Q. (1978).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2nd ed.). Ber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Ltd.
- Ragin,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adish, W. R., Cook, T. D., & Leviton, L. C. (1991). *Foundations of program evaluation: Theory of practice*. CA.: Sage Publications.
- Smith, M. F. (1988). Evaluation utilization revisited. *New Directions for Program Evaluation*, 1988(39), 7-19.
- Weiss, C. H. (1996). Evaluation research: methods of assessing program effectiveness. *Evaluation Practice*, 17(2), 173-176.
- Weiss, C. H. (1981). Measuring the use of evaluation. In James A. Giarlo (Ed.), *Utilizing evaluation: Concepts and measurement techniques* (pp. 17-33). CA.: Sage Publications.

ABSTRACT

Fuzzy set-quality comparison analysis of causal conditions of evaluation utilization at a youth center

Han Ji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al conditions of evaluation of a youth center and to better understand their combined structure. A questionnaire survey of 247 practitioners in 29 youth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s with experience of comprehensive evaluation of youth center more than once was conducted.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BM SPSS ver 23, and fsQCA 3.0 Windows software.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causes of evaluation of the youth center, all variables except for the support and care of the organization were verified as the cause of the evaluation. Next, the combination of the caus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evaluation utilization resulted in three combination structur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youth training facilities in terms of evaluation acceptance, evaluation index, evaluation committee, and the evaluation data itself.

Key Words: evaluation of youth facilities, youth center, evaluation utilization, fuzzy set-quality comparison analysis

투고일: 2019. 3. 8, 심사일: 2019. 3. 21, 심사완료일: 2019. 4. 15

* Chung-Ang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Instructor, hjy0330@hanmail.net